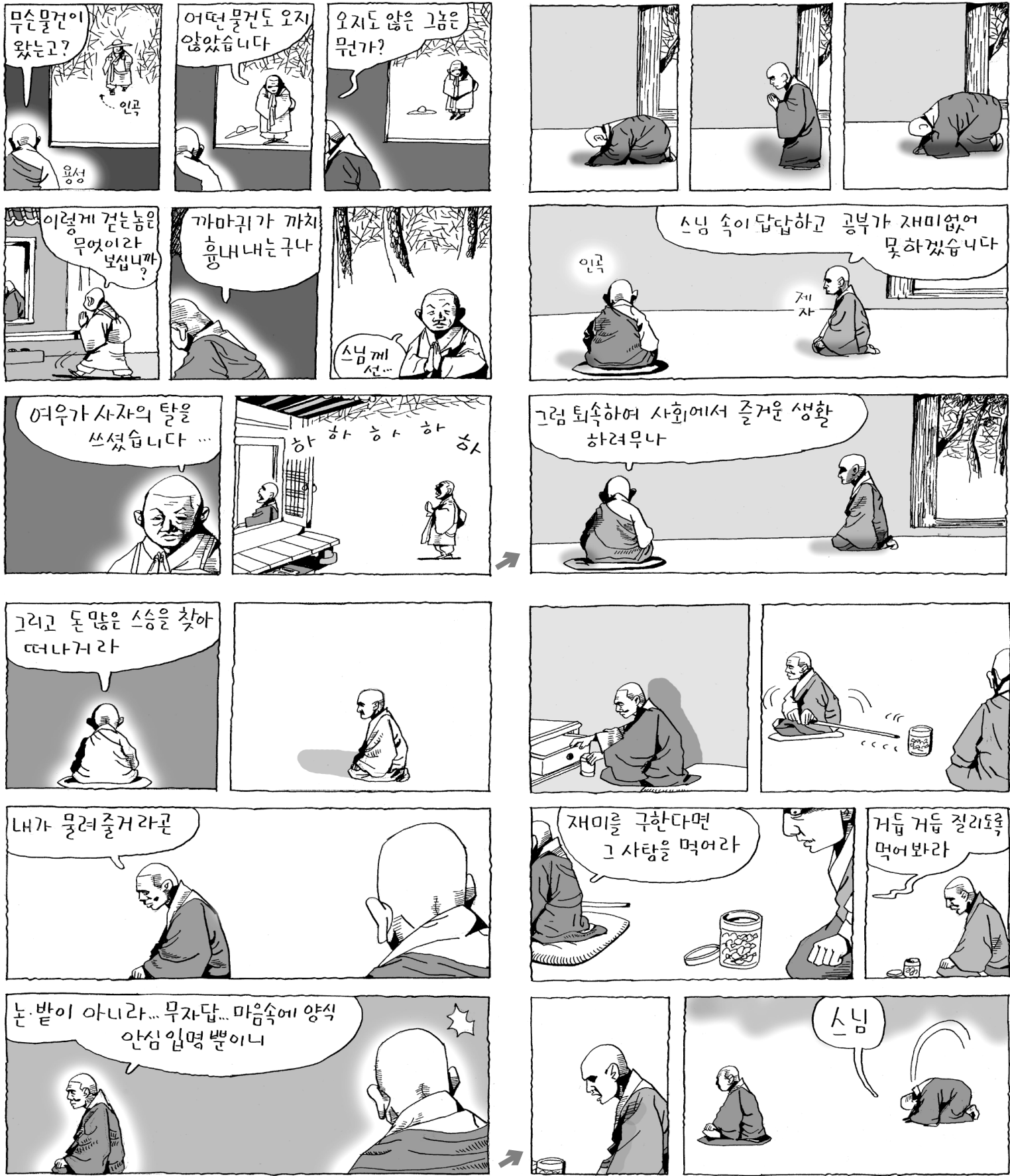


# 주장사파라...

⑨ 인곡 스님의 '사탕'



조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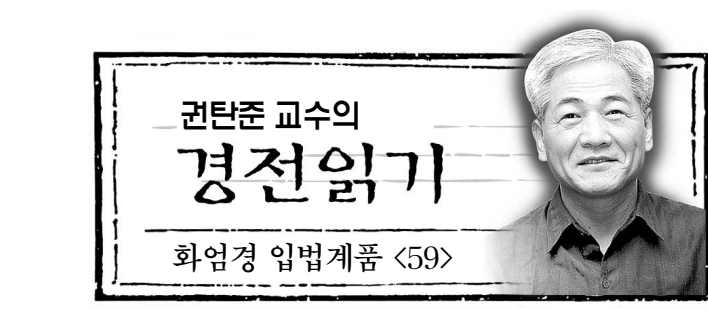


인곡 스님(1895~1961): 전남 영광 출생. 고창 문수사로 출가. 백양사서 금성 스님 은사로 득도. 용성 스님 법제자. 마하연, 상원사 등에서 정진. 해인사서 수좌를 제집.

선재동자는 다시 가버라성에 있는 석가족(釋迦族) 출신의 여인인 구파(婁波)를 찾아간다. 구파는 석존이 태자로 있을 때 부인의 한 사람이다. 선재동자가 가버라성에 이르러 '법계를 널리 나타내는 광명한 강당'에 들어가 보니, 그녀는 보배연꽃사자좌에 앉아 있었다. 선재동자가 그녀에게 예배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들었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아늑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으나 보살이 어떻게 해야 생사 중에서 생사의 격정에 물들지 않으며, 법의 성품을 깨달아 성문이나 벽지불의 지위에 머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부처의 법을 구족하고 보살의 행을 닦으며, 보살의 지위에 있으면서 부처님 경계에 들어가며, 세간에서 초월하고도 세간에 태어나며, 법의 몸을 성취하고도 그치지 않는 여러가지 육신을 나타내며, 형상 없는 법을 증득하고도 중생을 위하여 모든 행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법을 말할 것 없음을 알고도 중생을 위하여 법을 연설하며, 중생이 공한 줄 알면서도 중생을 교화하는 일을 버리지 않으며, 부처님은 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음을 알면서도 부지런히 공양하고 물러가지 않으며, 모든 법이 업도 없고 과보도 없음을 알면서도 여러가지 착한 행을 닦아 항상 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석녀 구파는 보현의 모든 행과 원을 닦는 이라야 이렇게 물을 수 있다고 하면서 선재동자를 칭찬하고 나서, 보살들이 열 가지 법을 성취하면 인트라. 그물같은 넓은 지혜광명의 보살행이 원만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법을 설한다. 그 열 가지 ①선지식을 의지하는 것, ②광대하고 훌륭한 이해를 얻는 것, ③정정한 욕망을



권관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59>

석녀 구파의 법문

## 지혜광명의 보살행 위한 열가지 법설 삼매없는 부처님 세계 구현은 '허망'

얻는 것, ④은갖 복과 지혜를 모으는 것, ⑤여러 부처님에게서 법을 듣는 것, ⑥마음에 항상 삼세의 부처님을 버리지 않는 것, ⑦모든 보살의 행과 같은 것, ⑧모든 여래가 보호하고 염려하는 것, ⑨근 자비와 묘한 서원이 다 청정한 것, ⑩지혜의 힘으로 모든 생사를 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만일 보살이 선지식을 친근하면 정진 불퇴하여 다함이 없는 부처님의 법을 닦을 수가 있다"고 하여, 열 가지 법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역시 선지식을 친근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선지식을 친근하는 열 가지 법을 설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석녀 구파는 선재동자에게 "나는 이미 '모든 보살의 삼매 바다를 관할하는 해탈문'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듣고 나서 선재동자가 이 해탈문의 경계가 어떠한지를 묻

자, 그녀는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선남자여, 내가 이 해탈문에 들고는 이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 세계의 모든 법을 알고 볼 수가 있다. 또한 성문·연각·보살들이 제각기 도를 닦아서 깨달으려 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려는 활동을 나타내는 것 등을 모두 분명하게 보고 알고 있다. 그리고 법계의 구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일체중생의 마음의 바다, 일체중생이 쌓아 온 선근, 청정한 중생과 오염된 중생의 구별, 일체중생의 본성이 본래 공(空)하며 진여라고 하는 점, 성문·연각·보살·모든 부처님 경지의 삼매와 자재한 작용 등 다음과 부처 그리고 중생에 관한 일체의 것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위의 내용은 석녀 구파의 법문의 내용

을 간략하게 소개한 것이다. 선재동자가 묻고 있는 것은 법의 성품을 깨달아 모든 존재의 실상을 파악하여 어디에도 구애됨이 없이 깨달음의 경계를 실현하여 중생을 교화하는 법이다. 이에 대해서 석녀 구파는 그것은 바로 보현의 행과 원을 닦는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보살의 열 가지 법을 성취하여 한없이 넓은 지혜광명의 보살행을 원만히 행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모든 보살의 삼매바다를 관할하여 이러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깨달음의 경계를 실현하는 일이 어떻게 해서 삼매와 깊은 관련이 있을까. 보살은 삼매를 통해서 중생과 여래의 세계의 본질을 알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이상세계를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 보살이 지향하는 이상세계는 부처님의 세계이다. 그러므로 보살은 부처님의 본연력에 입각하여 가지가지의 세계에서 무량한 인연들을 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처님의 본원에 입각해서 전개하는 여래와 중생이 서로 관제하는 세계가 바로 삼매의 경계인 것이다.

'법계를 널리 나타내는 광명한 강당'에 앉아 있는 석녀 구파의 법문은 이러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녀가 말하고 있는 보살행의 성격은 결국 무한히 지혜를 밝혀 대자비의 원행(願行)을 끊임없이 실현해가는 것이다. 우리들이 지향해 나아가야 할 세계는 항상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세계이다.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의 모습이 없이 부처님의 세계를 구하고 있다면, 그처럼 어리석고 허망한 일은 없을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 네티즌 교리문답

## “사료간(四料簡)이 틀림 없는가?”

문 영명(永明)선사가 썼다는 사료간(四料簡)을 읽어보면 깨달음으로 가는데 있어서 참선과 염불을 함께 하는 것이 으뜸이고, 염불만 한다면 못더라도 모두 깨우칠 것이고, 참선만 한다면 열에 아홉이 못미칠 것이라 합니다. 틀림이 없는 것이지요?(ID '사료간')

답1: 참선이든 염불이든 올바로만 한다면 못 깨칠 일이 없지 않겠는가. 무엇을 하든 바로 못 하니 이런 경책의 말씀이 나온 것이다. 어느 방편을 옳다 그르다 할 일이 못된다. 자기 그릇에 맞는 것을 채웠다가 비우면 되는 것이다. 중국에는 그릇마저도 깨버려야 하지만, (ID '거서이')

답2: 만약 염불이나 부처를 통해서 내면으로 향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옳지만 외부로 향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복을 구한다면 중생이 본래면목을 찾는다면 감히 수행자라 할 수 없다. 수행을 통해 일어나는 욕망을 먼저 본다면 영명영수 선사의 말씀은 옳지만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을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 위한다면 영명 스님의 의도를 오해하게 된다. (ID '이릿고')

답3: 염불이나 참선의 화두도 그 수행자의 구기에 따라 일시적으로 어린 아이의 장난감과 같은 효력은 반드시 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그 장난감마저 버려야 한다. 둘 다 이치의 집착에 지나지 않기에, 염불이나 참선이니 하는 방편마저 놓아야 한다. (ID '태양성')

부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선의 세계 33

## 불립문자(不立文字)-6

문자사용, 글쓰기, 글 읽기는 이미 철저히 우리의 생활방식에 속속들이 스며들어있다. 우리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은 짐작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인류 문화사에는 분명히 그런 시절이 있었다. 문자가 보편적으로 쓰이기 이전에도,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에도, 말과 문자가 결합하기 이전에도 인류는 존재하고 삶을 꾸려왔다. 인간이 가진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 대단히 약한 동물이다. 그런데도 곳곳에 생존하여 마침내 지구라는 별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옛날에도 생존과 발전을 가능하게 한 지혜가 있었고, 어느 동물과는 달리 대대로 내려오는 경험의 전수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오늘날과 같이 말과 문자가 결합한 언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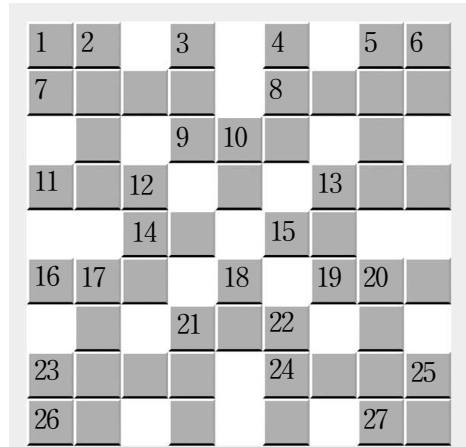
연구결과를 담은 저술 <Orality and Literacy>는 우리나라에서도 <구술문화와 문자문화>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되었다. 대이규, 임명진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1995. 월터 옹에 따르면,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에는 서로 매우 다른 '정신역학'이 작용한다. 쉽게 말하자면 사고방식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월터 옹은 두 문화의 여러 가지 특징적인 차이점을 매우 전문적인 차원에서 보며 대단히 약한 동물이다. 여기에서는 우리의 주제, 즉 고전문화 태동기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왜 글을 쓰지 않고 오히려 글쓰기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는가에 있었고, 어느 동물과는 달리 대대로 내려오는 경험의 전수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오늘날과 같이 말과 문자가 결합한 언어가

## 말과 문자의 결합 전에도 인류의 삶과 문화 있었다

문화에 대해 비판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플라톤의 <파이드로스>에는 소크라테스가 글쓰기를 비판하는 이유가 서술되어있다. 첫째로, 글쓰기는 인간 정신의 내면에 있는 것을 정신 밖에서 설정하는 것, 즉 사물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인간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둘째로, 쓰기는 기억을 파괴한다. 외적인 수단에 의지하기 때문에 내면의 일을 정신 속에 각인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셋째로, 씌어진 텍스트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는다. 넷째로, 실제의 말과 사고는 언제나 실제 인간끼리 주고받는 맥락에서 이루어지는데, 쓰기는 그러한 맥락을 떠나서 비현실적이고 비자연적인 세계 속에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글쓰기가 인간 정신활동의 중요한 무엇인가를 파괴한다고 본 것이다. 다른 사상가들은 무엇이라고 했는지, 다음 회의 글에서 이야기를 더 잇기로 한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그때의 문화를 지칭하기 위해 무문자문화(無文字文化)라는 말을 만들어볼 수도 있겠다. 어떤 학자는 구술문화(口述文化)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무문자문화의 생활방식이 가능하기가 무척 어렵지만, 사고방식이나 세계관, 가치관이 과연 어떠한지를 정말 짐작하기도 힘들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문자문화의 사고방식이나 세계관, 가치관과는 아마도 다른 점이 많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는 짐작할 수 있다.

월터 옹(Walter J. Ong)이라는 학자가 그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였다. 그



정답은 26면에

### 세로

1. 불법에 정통하고 교법(敎法)의 사표가 되는 스님 또는 재가불자 2. 불교에서, '마음을 돌려 바른길로 들어섬'을 이르는 말 3. 공부를 넣어두는 통 4. 강원 강릉시의 평창군의 경계에 있는 고개 5.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 6. 도(道)를 구함 10.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줌 12. 어떤 전문 분야에서의 지식이나 기술이 특히 뛰어난 사람 13. 낙농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17. 남을 교묘하게 속이는 술책 18. 왕비 20. 예장 때 남자가 쓰는, 꼭대기가 둥글고 높은 서양 모자 21. 기사 계급 특유의 규범 및 행동 양식의 이상형 22. 뜻이 상반되거나 정도가 다른 사물을 대조시켜 어떤 사물을 강조하는 표현 방법 23. 얼굴이나 머리 등을 곱게 매단진 25. 서류의 양식.

### 상식퍼즐

가로

1. 불법(佛法)을 강설하기 위한 모인, 한 곳에 모여 불사(佛事)를 행하는 일 5. 야구에서 저명인사가 제1구를 포수에게 던짐 7. 뱀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으로 부처같이 착한 말만 하는 일. 사람 8. 마음이 너그럽고 도량이 큼 9. 물리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 11. 수도와 인접 지역을 포함한 지역 13. 낙요한 사람 14. 법원에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함 15. 부유한 농부 16. 선거권이 있는 사람 19. 평균치를 산출할 때 각 개별치에 부여되는 중요도 21. 기구들 기준으로 구분한 지역 23. 미술과목을 가르치는 사람 24. 일정한 터전이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님 26. 니카르주(의) 다른 이름 27. 이들과 같.